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 III. 증가한 선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4. 강원도와 경상도지방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 1) 장성만 목사



25세 무렵의 장성만 목사

장성만 목사(1932.11.29.-2015.12.6)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큰 인물이었다. 그는 목회자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이자 문필가였으며, 사회 활동가였다. 그는 대학교회의 전신인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현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경남공업전문대학(현 경남정보대학교) 학장 및 동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제11,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당 발기인 및 부산시 당위원장, 민정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청년 장성만을 곁에서 지켜본 선교사들인 알렉스 빌즈(V. Alex Bills), 리처드 래쉬(Richard Rash), 마크 맥시(Mark G. Maxey) 뿐 아니라, 장성만 목사보다

4살 아래인 김찬영 목사도 장성만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깊은 신앙심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찬영은 20대 초반에 장성만 목사가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세족회 회원이었다(V. Alex Bills, “Young Men,”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WL, October 1958, Number 44).

이 글에 기술된 장성만 목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에 맞춰 그의 청년시절 곧 그의 2,30대에 집중되었다. 또 이 글은 청년 장성만 목사가 어떻게 하여 큰 인물이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에 집중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선교사들의 증언, 곧 장성만의 2,30대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선교사들의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성만 목사는 생전에 ‘나의 삶 나의 보람’[장성만, ‘나의 삶 나의 보람,’ <民石 張聖萬 博士 華甲記念 論文集>(부산: 民石 張聖萬 博士 華甲記念 論文集 編纂委員會, 1992)]과 <국민일보>에 42차례에 걸쳐 연재된 ‘역경의 열매’[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2009년 4월 5일부터 5월 22일자).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page=8](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page=8))] 및 <부산

일보>에 실린 ‘내 인생의 멘토, 선교사 마크 지 맥시’[‘내 인생의 멘토-장성만 동서학원 설립자 편: 선교사 마크 지 맥시,’ <부산일보>(게재: 2015.03.10.)] 등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피력해 놓았다. 그러나 장성만 목사는 자신의 청년 시절에 관해서 자세히 기술한 바가 없다.

## (1) 장로교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개종: 1932-1950년대 초

### ①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

장성만은 음력으로 1932년 11월 2일생이고, 양력으로는 11월 29일생이다. 2015년 12월 6일 별세하였으므로, 이 땅에서 만 83년하고 일주일을 더 살았다. 장성만은 “부산 시 토성동에서 부친 장용환(張容煥) 씨와 모친 박보질(朴甫質) 씨”[최훈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 고 장성만 박사 추모특집: 장성만 목사의 신앙,’ <지역사회>(2016년 봄호): 7] 사이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누님 둘, 아래로 동생 셋이 있었다. 부친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냈으나 중학교 2학년(15세) 때인 1946년 여름에 부친이 콜레라에 걸린 지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역경의 열매(1),’ 2009년 4월 6일자]. 알렉스 빌즈는 장성만이 3대째 믿어온 장로교집안 출신으로서 할머니가 처음 믿었고, 아버지도 집사였다고 썼다[V. Alex Bills, “Shung Man Chang,” WL, September 1958, Number 43].

1946년 미군정하에서 중학교가 6년제로 개편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자면 1951년 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제가 바뀐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고, 바뀐 학제가 이듬해 입학생들부터 시행되었다면 5학년을 마친 1950년 초에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해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비록 그 신학교가 서울에서 내려와 임시교사에서 개교한 신학교라 할지라도, 6·25 전쟁을 피해 부산에 내려온 신학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존 J. 힐 선교사와 1965년 최윤권 목사도 임시교사에서 신학교 수업을 한 바가 있다. 장성만은 공산군이 낙동강에서 후퇴할 무렵인 1950년 9월 말쯤에 입대해서 미 육군 제2사단에 배치되었다가 만 20세가 된 1952년 말쯤에 제대한 것으로 추정된다[‘역경의 열매(2),’ 2009년 4월 7일자].

알렉스 빌즈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가 다닌 신학교를 “경남장로교성서신학교”(Kyungnam Presbyterian Bible Institute)라고 했고[“Shung Man Chang,” *Ibid.*], 장성만 목사 자신은 “영남성서신학교”(Yung-Nam Bible Institute)라고 했다[Mark G. Maxey,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n.d.. 이 글은 맥시의 추천서 성격의 글로써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으로 발송한 서신으로 추정됨]. 이 무렵 부산에 ‘경남노회 성서신학원’이 있었는데, 혹시 이 학교를 다녔을는지 모른다. 장성만이 제대 후 복학하였을 당시에 장로교단에 분열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산에 장로교 신학교는 ‘경남노회 성서신학원’ 한 곳 뿐이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경남성서신학원 거제분원 개강예배,’ <시사코리아뉴스>(입력: 2009.03.17) 및 ‘경남성서신학원 33회 졸업식으로 평신도지도자 배출하다,’ <한국기독교공보>(입력: 2010.12.20)].

장성만의 꿈은 동아대학(1946년 개교)에 입학하여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후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깊어져 나라보다는 백성과 이웃과 자신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신학을 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물론 가정 형편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 목사가 되겠다는 장성만의 신념은 6·25 참상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제대하자마자 주저함 없이 1953년 1월 4일 첫 주일에 대교 교회를 시작한 것만 보아도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때가 만 20살을 갓 넘긴 때였다.

## (2)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동기

①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미군 군목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그 첫째는 신학교 시절인지, 아니면 중학교시절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군 군목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아래와 같은 진술 때문인데, 이 진술은 장성만이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가 신학생 때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진술은 동석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과 혼합된 부분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크게 약화되고 만다.

저는 장로교에 소속된 영남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성경공부에 진력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우연히 한 집회에서 어떤 미군 군목을 만났고, 그로부터 저는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회 후에 저는 제게 새롭게 인식된 복음에 관해서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설교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설교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울과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순수한 복음이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두 번째 또한 아래와 같은 진술 때문인데, 1949년이면 신학생 때가 아니라 중학교 5학년 무렵이기 때문이다. 이 진술은 불과 9년 전에 있었던 일의 회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고 착각이 있었다고 해도 앞뒤로 1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복음의 단순성을 수용하고,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따르며, 모든 인위적 요소들을 충실히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어로 침례를 받았고, 일생을 환원운동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때가 1949년 4월이었습니다<“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그 일 후에 저는 군에 입대하였는데, 6·25전쟁이 터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전사자들을 보면서 복음전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 후 1953년 1월 첫 주일에 식구들과 이웃들을 포함해서 총 일곱 명이 저희 집에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교 교회의 시작이고, 기억할 귀한 날입니다<“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이것은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가 6·25전쟁이 터지기 이전이었고, 입대 전이었으며, 그때에 이미 장성만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음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제대하자마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알렉스 빌즈의 증언인데, 그는 장성만이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를 부친이 돌아가신 해이자 중학교 2학년 때인 1946년 때였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12년 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혼란기에 장성만은 미군 군목을 만나게 되었고, 군목은 그에게 주님의 길을 좀 더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성만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였고, 그리스도어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군목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는 분명코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Shung Man Chang,” *Ibid*>.

이 빌즈의 진술은 장성만 목사로부터 직접 청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오류가 있고, 혼합된 점이 있다고 보여서 1946년 설은 수용되기 어렵다.

18세의 학생 장성만에게 신약성경교회의 중요성을 깨우친 이 군목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신 미군 군목으로서 1949년 4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할 마틴(Hal H. Martin)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마틴은 규슈에서 복무하다가 1947년 초가을에 한국 복무의 명을 받고 김포 항공기지에서 근무하였고, 부인 에버린(Evelyn)과 아들 게리(Gary)도 한국에 있었다. 장성만 목사가 미군 군목을 만난 1949년 4월이면, 마틴이 한국에서 복무를 시작한지 1년 6개월가량 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부산을 방문한 군목이 마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틴은 한국 복무기간 동안 최상현 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관련자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1947년 말까지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선교사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이므로 상주한 선교사가 없던 때였다<John T. Chase,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KM, May 1947: 7 and “The Year 1948,” KM, March 1949: 1. 할 마틴에 관한 자료: [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out](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out)>.

②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동석기 목사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장성만이 부산에서 미군 군목을 만난 1949년에 서울에는 존 J. 힐 선교사 가족이 있었다. 힐은 1940년 11월 16일에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당하여 미국에 머무는 동안 19개월간의 미 육군 군목으로 복무를 마치고 1946년 5월 14일 제대하였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947년 8월에 M.A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강제로 철수당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하여 3월 15일부터 서울 연지동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열고 있었다["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KM, October 1946: 2; John J. Hill,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KM, December 1947: 1, 3-4; John J. Hill,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July 1949: 2; "Responsive Koreans," *Christian Standard*, CS, 15 February 1947: 118;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S, 27 August 1949: 54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188-192].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의 발발로 힐은 일본으로 피신하였고, 1951년에는 부산에 6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보고가 힐 선교사에게 전달되었다. 이들 교회들은 6.25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온 목회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2월에 힐 선교사는 서울 목회자들 가운데 두 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21명의 내국인 전도자들이 부산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힐 선교사는 "부산 인근에 여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근채의 편지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 있었는데, 그 지도에 새로운 장소들에 여섯 개의 교회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John Hill Granted Permission to Return to Korea," CS, 19 June 1951: 403>.

존 힐 선교사는 1951년 6월 18일 부산에 돌아와 7월 5일까지 머물렀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나는 부산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피난민 형제들, 그중에서 15명을 만나고 도왔다. 우리는 6월 24일과 7월 1일에 나무 아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6월 24일에는 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일할 신실한 교단 설교자도 포함되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예배 장소로 사용되도록 큰 천막을 사서 거기에 남겨 두었다 <John J. Hill, "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S, 4 August 1951: 483>.

이 같은 증언은 만 21살이 된 장성만이 1953년 1월 4일 대교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김광수 장로(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난 때인 1952년 2월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대지공원에 천막을 얻어 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고 했고, 임학균 전도자에 의하면, 또 다른 교회가 부산으로 피난 와 있던 이흥식 전도자와 몇몇 형제자매들에 의해서 1951년 2월 4일 용두산 일대에 교회를 설립하여 첫 예배를 드리고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렸다고 증언하였다. 이 두 교회는 1954년 7월 20일에 통합되어 지금의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교역자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광수는 1952년 봄에 일본 이바라키 국립대학의 캐논이 내한하여 부산에서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

유를 설명한 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김광수 장로,’ <http://kccs.info/kangsu.htm> 및 ‘영남 환원의 산실: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http://kccs.pe.kr/CHURCH/xianch36.htm>>. 이런 정황들은 동석기 목사가 왜 부산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가 부산에 머무른 이유가 단지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성만은 동석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때 나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됐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인 동석기 목사님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실력 있는 목회자였다. 백발의 노목사가 대교동 미국문화원 강당에서 강 연회를 열고 있었다. 그때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열린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 동 목사님의 메시지는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역경의 열매(3),’ 2009년 4월 8일자>.

이 진술은 미국 군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알게 되었다는 앞선 진술과 상충되는 것 같으나 실은 장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가입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진술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목회자들에 의해서 부산에 몇몇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이 개척되었던 것이고, 동석기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석기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이민노동자였으나 미국 본토로 건너가 감리교계통에서 학부와 원부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 감리교에서 목회하다가 재차 도미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및 그리스도의교회들 계통 신학교들에서 다시 공부한 후에 환원하였고,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의 목사로서 한국에 파송된 분이였다. 다음의 글은 만 21세의 장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가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성경 이외의 어떤 인위적인 교리나 신조도 거부한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매주 성만찬을 갖는다. 세례 대신 침례를 정례화한다.” 동 목사님의 강연이 귀에 쫄쫄 들어왔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광야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머릿속에 그려온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였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록했다. 장로교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할머니의 신앙으로 버텼으나, 이제는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신앙의 독립선언이었다. 1953년 1월 1일. 인생 여정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우리 집 2층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다. 교인은 총 7명. 비록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베풀었다. 실로 감격적인 예배였다<‘역경의 열매(3),’ 2009년 4월 8일자>.

### (3)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개척과 사역(1953-1960년대 초)

장성만 목사의 성공의 발판을 살펴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미군 군목과의 만남과 동석기 목사와의 만남이 있는 후, 그가 신약성경교회 질서체로의 환원

정신을 옹계 여겨 자발적으로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있다. 이 선택이 그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이 대교 교회가 있었기에 몇 년 후 그를 도와준 알렉스 빌즈와 마크 맥시 및 리차드 래쉬를 만날 수 있었다.

장성만 목사의 1953-56년 사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 시기에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존 힐(John J. Hill)을 비롯한 다수의 여선교사들이, 55년부터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선교활동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다. 다른 한편 충청이남지역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중심으로 이신 목사와 최요한 목사 등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신학교는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에 있었고, 충청이남지역에서도 김은석 목사, 신현창 장로, 이신 목사 등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장성만 목사가 교단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57년부터였다.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 동석기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장성만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 소속을 어디에 두었었는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두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교회들에 두었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50년대 초기에는 유무악기파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었다. 무엇보다 50년대 중반 이후에 부산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사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알렉스 빌즈였다.

### ① 알렉스 빌즈(Alex Bills)



알렉스 빌즈(Alex Bills) 가족  
1956년 6월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 막내 아들 가이 돈(Guy Don)의  
출생 전 사진 좌측부터 베티(Betty), 캐스린(Kathleen),  
버클렌2세(verlen II), 리베카(Rebecca), 버클렌 알렉스 빌즈.

알렉스 빌즈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Osaka)에 선교사로 부임하여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5.htm>>.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웠고,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파장>은 1952년 11월 6일 CRM에 합류한 엑시 제인 폴츠(Exie Jane Fultz)가 책임지고 발행하였다<"Exie

Arrives," WL, December 1952: 2>. 그녀는 1953년 4월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 선교방송을 이어갔고, <파장>을 1959년 2월(47번)호까지 발행하였다<Exie Jane Fultz, "First-Fruits in Kobe, Japan," Fall Newsletter of Exie Fultz 1953: 1-2>. 이후 폴츠는 1959년 6월 8일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NCBA Inaugural Meeting," News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1-2).



바다에서 침례를 베푸는 장성만 목사  
부산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1957년 6월경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하였다.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들을 방송하였다. 빌즈는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고<"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L, March 1955: 1>, 1956년 9월 24일 법인(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으며<"C.R.M. Incorporated," WL, October-November 1956: 1>, 전 가족이 동년 12월 13일에 부산으로 옮겨와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L, January 1957: 1-2>.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방송국설립이 무산되자 1961년에 CRM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귀국하였다.

빌즈가 장성만 목사를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6월부터였다. 참고로 장성만은 이 무렵 20대 중반이었고, 목사안수를 1960년(28세)에 받았지만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88; '20년 동안 청소년 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장성만 목사 - 마지막 소망은 기독교 문화재단 말할 것,' <한국기독신문>(2009.1.24)]. 빌즈는 그가 대교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점에서 항상 '장성만 목사'라고 칭하였다. 빌즈는 부산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지난 몇 주간 사이에 침례를 보고해왔는데, 그 가운데 시내 중심에 있는 대교 교회가 가장 활동적이었다며 장성만 목사의 침례식 사진을 두 장이나 <파장>에 실고 소개하였다. 사진만으로 보



바다에서 침례를 받기 전 기념사진  
부산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1957년 6월경

면, 이때 바닷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총 8명이었고, 남자가 2명, 여자 6명이었다. 빌즈는 장성만을 포함한 몇몇 설교자들과 장로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공부를 주도하였고<"And the Lord Added," WL, June 1957, No. 32: 1-2>, 대교 교회에서 일련의 특별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Local Churches," WL, November 1957, November. 35: 2>.

중요한 것은 빌즈의 전 가족이 1956년 12월 13일 부산으로 이사한 이듬해 곧 1957

년 초중반부터 장성만 목사가 빌즈의 라디오선교사역에 긴밀히 동역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장성만은 빌즈의 모든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고, 빌즈는 그를 방송설교 담당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빌즈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입니다. 따라서 한국말 복음의 소리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춘 누군가를 찾는 것이 정말 엄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장성만 목사를 그 일의 책임자로 찾게 해주신 것이 기쁩니다. 그는 부산에서 최근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라디오 설교와 라디오 성경강좌들을 방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료준비에 쏟고 있습니다<“Shung Man Chang,” *ibid.*>.



만25세 때 강단에 선 장성만 목사(1958년)  
좌측 의자에 앉은 분은 조 세겔키 선교사이다(대교 교회).

이 무렵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에 소속되어 부산에 온 선교사들, 곧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1957.10.8.-59.2.25), 조 세겔키(Joseph Seggelki, 1958.1.31.-61.7) 가족, 버트 엘리스(Bert Ellis, 1958.5.3.-82.6) 가족은 빌즈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1958년 10월 25일 한국에 머문 선교사들과 미국에 대기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모두 탈퇴할 때까지 <Joe Seggelke, News Letter #3, January 1959> 대교 교회를 중심으로 장성만 목사와 긴밀히 사역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교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빌즈는 그 이유를 대교 교회가 그들이 출석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장성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의 사진설명,’ WL, July 1958, Number. 42: 3>. 그러나 구른지 양과 세겔키 및 엘리스 가족은 1958년 10월 25일 빌즈 가족과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빌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성만과 대교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이런 상황의 악화와 갈등 속에서도 빌즈는 꾸준히 장성만 목사와 대교 교회에 관련된 소식을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알렸다. 세족회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기 부산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의 훈련은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그 비전은 장성만 목사에게 속합니다. 그가 지도하는 젊은이들은 대개가 대학생들이었으나 그들은 목회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들을 섬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성만의 비전은 그들이 가능하다면 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일반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렉스가 지도하는 매주 성경공부도 그런 차원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입니다. 게다가 장성만 목사는 자주 젊은이 그룹을 데리고 산이나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들은 어떤 농가의 방들을 빌려서 며칠씩 함께 숙식하며 공부합니다. 우리는 여름 방학을 끝낸 직후 이 같은 성경공부를 속개했습니다. 그런데 장래가 더욱 촉망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름방학동안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이는 연로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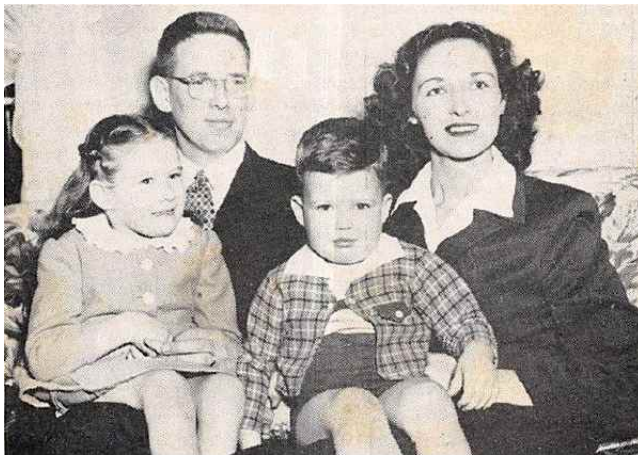


장성만 목사가 이끈 세속회 회원들(1958년 10월경)  
뒷줄 좌측부터 알렉스 빌즈, 장성만, 김홍균(통역), 우측 끝 김산영

모를 봉양하려고 시골의 고향마을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손실을 메우고 그들의 자리를 채워줄 다섯 명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입회하였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기에 중심 교회를 떠나 교회가 없는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4백만 부산지역에 우리에게 속한 교회가 2-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결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형태입니다. 사방이 다 교회가 필요한 곳들입니다<“Young Men,” WL, October 1958, Number. 44: 1-2>.

이로써 우리는 젊고 유능한 20대의 장성만 목사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질 발판을 깔아준 인물이 알렉스 빌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성만 목사가 대교 교회를 개척한지 만 4년쯤 된 1956년 12월 13일에 알렉스 빌즈의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왔다. 이듬해부터 장성만 목사는 빌즈의 동역자로 활동했고, 빌즈 선교사를 보려고 서울과 강릉뿐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다수의 선교사들이 부산을 찾아왔으며,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젊고 유능한 20대의 장성만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 규슈에서 사역하는 마크 맥시였다.

## ② 마크 맥시(Mark Gregory Maxey)



일본 가고시마 '규슈기독교선교부'의 마크 맥시(Mark G. Maxey) 선교사 가족(1950년경) - 뒷줄 마크와 폴린(Pauline), 앞줄 폴라(Paula)와 월터(Walter Mark). 마크 맥시 선교사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고, 젊은 장성만 목사를 발굴하여 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마크 맥시는 알렉스 빌즈가 장성만에게 깔아준 발판에 날개를 달아준 인물이었다. 맥시 선교사 가족은 1950년 8월 27일 미국에서 배를 타고 9월 12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일본의 땅 끝 도시 가노야(Kanoya)에 안착한 것은 동년 10월 20일이었고, 그곳에 '규슈기독교선교부'(Kyushu Christian Mission)를 세워 사역을 시작하였다<Mark G. Maxey, "Thumbnail History," LinkLetter, June 1951: 2>.

맥시는 1944년 6월부터 1949년 8월 30일까지 5년간 미육군 군목으로 사역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 년은 일본에서 근무하였다. 전쟁 직후 미군정의 통치로 일본정국이 안정된 1947년에는 전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맥시 부부가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맥시는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49년 8월 30일 미시건 주 배틀 크릭(Battle Creek)에서 제대하였다. 맥시 가족이 규슈를 선교지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선교사들이 가지 아니한 곳,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고 싶다는 것이 그 첫 번째였고, 나중에 미해군항공기지가 있는 가노야에서 군목 폴 쿡(Paul Cook)이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회를 시작한 바가 있었다는 소식과 그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 그 두 번째였다. 물론 맥시는 그 전에 규슈나 가노야에 가본 일이 전혀 없었다(Mark G. Maxey, “1955 Kyushu Report, Summar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n Kanoya” LinkLetter, November 1955: 2-3. 이 자료는 맥시 선교사 가족이 미국에서 발간한 첫 안식년 소식지(1955년 6월부터 56년 9월까지)이다).

맥시가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에 한 때 일본에서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 잠시 사역했던 해롤드 테일러 가족이 있었다. 또 부산에는 1951년부터 일본 오사카(Osaka)에서 5년간 라디오방송선교를 했던 알렉스 빌즈 가족이 있었다.

둘째는 한국이 선교사들에게는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in the world)으로 알려진 곳이였기 때문이다(Korean Work,” Tokyo Christian, TC, February 1932: 2). 맥시는 “일본에서 한 사람의 개종자는 한국에서 100명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가 한국에서보다 100배나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가 있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06, November 1959: 1).

셋째는 한국이 6·25전쟁으로 많이 피폐해 있었기 때문이다. 맥시의 한국에 관한 1951년 반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날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Mark G. Maxey, “Some Questions Answered,” Linkletter, June 1951: 4).

넷째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규슈의 관문인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보다 훨씬 짧다. 밤배를 이용하면 하룻밤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이다.

다섯째는 맥시는 자신이 사역하는 가노야를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나사렛과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멸시당하는 동양의 나사렛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했던 맥시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윌리엄 D. 커닝햄과 존 T. 채이스가 그러했듯이, 소외되고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Mark G. Maxey, “Why Kyushu?” Linkletter: 2).

맥시가 부산을 방문하여 장성만 목사를 최초로 만난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57년 이후이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는 1959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3년 4월에도 맥

시는 대만을 거쳐 (장성만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부산, 대전, 서울의 학교들과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는 장성만 목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장성만 목사 내외는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25년간 친근한 사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써 그가 부산에 세운 대학에서 봄학기 신앙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Mark G. Maxey, Linkletter No. 261, May 1983: 1>.

여기서 맥시가 말한 “25년간”이란 말은 1959년을 말한 것이다. 1959년 5월 2일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 존 릭긴스(John Liggins)가 규슈 나가사키 항에 상륙한지 일백 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맥시는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성서대학(The College of the Scriptures)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신의 친형제인 티브스 맥시(Tibbs Maxey)를 오사카성서신학교 교장인 마틴 클라크(Martin Clark)와 상의하여 강의와 설교를 목적으로 한 달간 일본에 초청하였다. 이때 맥시는 친형제 티브스 맥시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 상주한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부산에 상주한 알렉스 빌즈 가족을 만나 교제하였다. 이때 맥시는 장성만 목사를 처음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983년 4월은 그때로부터 25년째였다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3, July 1959: 1-2>.

맥시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보낸 장성만 목사 소개장에서 1962년 6월 이전까지 부산을 세 차례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 <Mark G. Maxey, Linkletter No. 134, September 1963: 3>. 이 가운데 한번은 1961년 7월 중하순으로써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6주간의 집중교육을 마친 장성만 목사와 함께 입국하여 10일간 체류하였다. 대교 교회의 장성만 목사가 그들을 안내하였고 대전에서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 이 때 25명의 한국인 목사들을 만났고, 부산과 대전에 있는 교회들에서 8번 설교하였다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0, September 1961: 1>.

이때 빌즈 가족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조와 맥신 세겔키 가족도 1961년 7월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갔고 <Richard G. Lash, “Letter #38,” Flashes from the Lashes, FL, 3 October 1962: 1>, 버트 엘리스 가족만 부산에 남아 있었다. 엘리스는 1958년부터 1962년 안식년을 갖기까지 조 세겔키와 함께 한국방송미션(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3년간 전파선교를 하였으며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공부 그룹들을 조직하여 가르쳤다. 엘리스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하고는 유대관계를 가졌으나 1958년 10월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알렉스 빌즈와 협력했던 장성만 목사하고는 유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Joe Seggelke, Bert Ellis, “Dear Friends,” Korean Broadcasting Mission, Pusan, Korea. 1961: 1-2>.

맥시가 1962년 6월 이전까지 부산을 방문한 나머지 한 차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시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960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이후 일본에 상



예배당앞에서 담소하는 장성만 목사(26세)와 도쿄 요츠야 선교부의 해롤드 심즈 선교사, 1958년 10월말부터 11월말사이

주한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 중반부터로 추정된다. 1955년 11월부터 해롤드 테일러 가족이 서울 송월동 기독교선교부에 상주하였고, 1957년 한국에 들어온 리차드 래시(Richard G. Lash, 라시득) 가족이 1958년 5월 10일 이후 강릉에 상주하였다. 또 알렉스 빌즈(Verlen Alex and Betty Bills) 가족이 1956년 12월 13일 이후 부산에 상주하였다. 특히 해롤드 테일러는 서울성서신학교를 운영하면서 6주간 집중강의를 도입하였는데[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232], 이 강의의 강사로 일본에 상주한 선교사들을 초빙하여 두 과목을 맡아 가르치게 하였다. 1957년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6주간 집중강의에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앤드류 패튼(Andrew Patton)이 초빙되었고 <Andrew Patton, "Trip to Korea," TC, Winter 1958, vol. 57, No.3: 2; Harold Taylor, "Activities and Ministries," For Christ in Korea, FCK, February 1958: 3. On Oct. 21>, 이듬해인 1958년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6주간 집중강의에는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되어 태평양 전쟁 직후 도쿄 미카와시마(삼하도)조선인교회를 재건한 해롤드 심즈(Harold Sims)가 초빙되었다<TC, Fall 1958, vol. 58, No. 2: 2>. 심즈는 이 기간에 부산을 방문하여 알렉스 빌즈 가족과 장성만 목사와 그의 교회를 방문한 바가 있다. 빌즈는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파장>에 게재하였다<WL, December 1958-January 1959, Number. 46: 2>. 또 알렉스 빌즈 가족이 1961년 새해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일본 규슈 가노야에 상주한 맥시 가족을 방문하여 교제하고 몇 차례 설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Mark G. Maxey, Linkletter No. 115, January 1961: 1-2>, 맥시 가족 또한 빌즈 가족이 있는 부산을 1959년과 60년에 두 차례 방문하여 젊고 유능한 장성만 목사를 만났고, 1961년 일본에 초청하여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두 차례 6주간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맥시가 장성만을 돕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장성만은 20대의 젊은 목회자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유능함과 지도력을 선교사들 앞에서 십분 발휘하여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기 때문이고, 맥시 또한 젊고 유능한 내국인 사역자 양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장성만의 비전이 맥시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전 때문에 맥시는 오사카성서신학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였고<Mark G. Maxey, Linkletter No. 117, April 1961: 1-2>, 자신도 가노야에 학교

(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를 세워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자립의 기반을 돕겠다는 계획을 1956년에 실행에 옮겼으며 <“1955 Kyushu Report, Summar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n Kanoya,” Linkletter, November 1955: 8. On return(1955년 6월에 시작한 안식년을 끝내고 1956년 9월 일본에 돌아가면), we will start a school to train young men and women for Christian leadership and evangelism, and secondarily, to teach them skills which will help them to be self-supporting. Land for such a school has already been purchased adjacent.>,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처럼 자신의 학교에서도 6주간 집중강의 또는 2주간 집중강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March 1960: 1). 맥시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상주한 해롤드 심즈를 강사로 초빙하기도 하였다. 심즈는 일본어가 능통하였기 때문에 1961년 1월 9일부터 2주 동안 매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강의에서 로마서를 일본어로 강의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15, January 1961: 2).

둘째, 윌리엄 D. 커닝햄과 마찬가지로 맥시도 한국사정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복음 전파력에 주목하였다. 맥시는 장성만 목사와 리차드 래시의 초청을 받고 1966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방문이 맥시에게 특별했던 것은 한국에서 이뤄진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 현장들(부산, 대전, 서울, 강릉)과 현지 선교사들(장성만 가족, 리차드 래시 가족, 존 힐 가족, 최순국, 최윤권,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그들이 세운 대학들(동서기독교실업대학, 한국성서신학교, 대한기독교신학교, 서울성서신학교)과 다수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강연들과 설교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소감을 맥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즈음 매우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나라는 일본의 서쪽 인근의 이웃나라 한국이다. 한국은 매우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수준에 도달할 희망은 아직은 수년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믿음에 관한 한 한국은 숫자와 열정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갖는다. 그들과의 친교는 정말 신나는 경험으로써 나는 그 같은 것을 다시 경험할 기회를 항상 고대한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64, November 1966: 1>.

이 같은 이유로 맥시는 자주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1965년 가을에는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의 신약학 교수 루이스 포스터 교수(Lewis Foster)를 일본에 초청하여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50, July 1966: 1-2. 포스터 교수는 장성만 목사와 필자의 은사였다.>. 포스터 교수는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약학 석학으로서 영어성경 NIV[신국제개역]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였고, NIV주석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주석을 쓴 학자였다. 맥시로서는 자신의 주선으로 미국에 건너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본국에서 성실히 일하는 일본 규슈 가노야교회의 히데오 요시이 목사와 부산에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를 개교시킨 대교 교회의 장성만 목사를 포스터 교수에게 내보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반면에 포스터 교수로서는 자신이 가르친 히데오 요시이 목사와 장성만 목사가 미국에 남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 성실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충만했으리라 추정된다. 또 맥시는 1969년 3월말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특강과 설교를 하였다. 제인 힐 선교사의 1969년 5월자 사신에 의하면 맥시는 이 방문 때 22명에게 칩레를 베풀었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83, April 1969: 1-2;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55-56]. 또 힐 요한 선교사가 유물로 남긴 사진들에 의하면, 맥시 부부(Mark and Pauline Maxey)는 아홉 살 된 막내딸 호프(Hope Maxey, 1960년 10월 4일생)를 한국에 데려온 것을 볼 수 있다. 맥시 선교사 가족은 부산실업전문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고 신입생 120명을 모집한 1971년 봄학기 신앙수련회에 초청을 받아 재학생 55명까지 포함한 전교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 칩레를 받은 사람이 30여명이 넘었다 <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3>. 맥시는 이후로도 자주 대학신앙수련회 등에 초청강사로 방문하였다.

셋째, 맥시는 이미 히데오 요시이(Hideo Yoshii)라는 젊고 유능한 목회자를 돕고 키우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학습을 받았기 때문이다. 히데오 요시이와 장성만은 1932년 동갑으로써 미국에 유학하기까지 각각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복음에의 사명감을 스스로 입증한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맥시는 이 두 사람을 미국에 보냈다. 그러나 이전 세대들 곧 선배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유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길어도 1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8, June 1961: 4. 필자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장남 마코토(구마모토 현립대학 영어영미문학과 과장교수)와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4년간 함께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 일에 맥시는 성공했고, 무엇보다 장성만 목사의 상상을 초월한 성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맥시는 1959년 7월 선교사로서 첫 결혼식 주례자 장대비가 쏟아지는 우중에 치른 히데오 요시이의 결혼식을 마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게 우리는 초창기 개종자들이 성숙해지고 결혼하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튼 미래를 위한 희망이 보인다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3, July 1959: 2>.

#### (4)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 수학

##### ① 일본 유학

장성만 목사의 일본 유학기간은 짧았다. 그는, 1961년에 오사카성서신학교에 편입학 하였는데, 그해에 3개월짜리 비자를 가까스로 두 차례 정도 받아 두 학기 곧 6주간 집중강의에 두 차례 참석하고서 졸업장을 받았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6주간 집중강의는 서울성서신학교에서뿐 아니라,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도 이뤄진 일종의 관행이었고, 맥시 본인도 가노야에서 운영한 학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에서 6주간 집

중강의를 하곤 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March 1960: 1>. 강사 초빙문제와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한국은 물론 일본도 경제적으로 어렵던 때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정기간 생활비를 벌어야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목회자도 연중 내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교통도 나빠 먼 길을 매주 오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성만 목사의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맥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61년 5월 말에 장성만 목사가 일본의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최남단 부산에 소재한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그는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6개월 방문비자를 받고자 했습니다. 헤롤드 심즈와 내가 편지들을 쓰고,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며, 공무원들을 찾아가 “그림의 떡처럼 그럴싸한”(“pie in the sky”) 약속을 하고 나서야 그에게 3개월 체류비자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계는 신약성경시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여 상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19, July 1961: 2>.



일본 규슈 섬 가노야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맥시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

이 점에 대해서 장성만 목사도 “당시 한일외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맥시 선교사는 수십 번 일본 법무성을 찾아가 비자발급을 요청했다. 규슈에서 도쿄를 오가며 보낸 시간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다.”<‘역경의 열매 (4),’ 2009년 4월 9일자>고 했다.

맥시는 이어서 입국비자를 받은 장성만 목사가 일본 규슈 섬 가노야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주변의 교회들뿐 아니라, 폴 프렛트(Paul Pratt) 선교사가 상주한 가고시마 지역의 교회들까지 방문하여 설교하였다고 적었다. 장 목사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그리스도교와 세계에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맥시는 일본이 공산주의라는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일본인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지성들은 미국을 멀리하고 소련에 기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맥시는 장 목사가 이 방문을 끝내고 6주간의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사카로 갔고, 오사카와 도쿄에 주재한 선교사들과 목사들 및 일본인 지도자들을 방문하였으며, 자기 가족은 한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Ibid.>.

이 여행에서 장목사가 일본에 체류한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로 추정된다. 6주간의 학업을 마친 직후 맥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맥시 가족은 1961년 7월 중순경에 한국을 방문하여 10일 정도 체류하였다. 대교 교회의 장성만 목사가 그들을 안내하였고 대전에서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20, September 1961: 1; Linkletter No. 121, December

1961: 1>.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교장 마틴 클라크 (Martin B. Clark)와 함께 촬영한 사진

장 목사는 그해 일본 그리스도인 대회 기간이었던 3월 31일에 헌당예배를 드린 새로 지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교장은 마틴 클라크(Martin B. Clark)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17, April 1961: 1).

장성만 목사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지역을 여행할 비용을 마련하는 행운을 얻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초청으로 나고야에 갔을 때 역에서 내려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 음식점에 들렀는데, 때마침 그 음식점에서 개업 2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성만이 경품추첨에 뽑혀 대형 냉장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장성만은 그 냉장고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였고,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대표적인 소설가 7인을 방문해 취재기를 작성하였다. 이 취재기를 바탕으로 ‘일본 대표 작가 회견기’라는 글을 써서 <부산국제신문>에 실었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기행문을 신문에 연재하였다(<역경의 열매(5),> 2009년 4월 10일자).

## ② 미국 유학

장성만 목사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린 것은 동갑내기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탓도 있다. 맥시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를 1961년 8월에 미국에 보낼 때의 방법과 경험을 그대로 살려 만 2년 후인 1963년에 장성만 목사를 미국에 보냈다.

맥시는 1961년에 장성만 목사를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에 편입시켜 일 년간 공부하게 하고, 히데오 요시이 목사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교로 보내 1년간 석사과정을 밟게 하였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요시이가 장성만보다 1년 먼저 1948년에, 장성만은 1949년에 칙례를 받았다. 요시이는 영어를 잘해서 아직 고등학생 때인 1950년부터 맥시를 도왔고, 장성만은 20대 중반이었던 1957년부터 알렉스 빌즈를 도왔다. 신학교에 입학한 시기는 장성만이 요시이보다 1년 빨랐고 1953년 1월에 개척함으로써 단독목회도 요시이보다 일찍 시작하였다. 다만 요시이는 오사카성서신학교에 입학한 1951년 4월부터 그해에 개척된 교회를 1959년 4월까지 8년간 봉사하였다. 신학교는 1956년에 졸업하였다. 1959년 5월부터는 맥시 선교사 가족이 상주한 가노야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7년 7월 30일 만 84세로 별세하기까지 섬겼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18, June 1961: 1-2; Vol 48\_2, “Summer-Winter 2017,” News



미국 신시내티에서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당시의 모습(1963-4년). 이곳에서 장성만 목사는 신학을 박동순 사모는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였다.

Letter of the Kagoshima Christian Mission>. 장성만 목사는 2015년 12월 6일 만 83세로 별세하였다. 히데오 요시이 목사보다 미국에는 2년 늦게 갔는데, 천국은 그보다 2년 먼저 갔다. 요시이 목사는 평생 가노야 교회를 섬기면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반면, 장성만 목사는 평생 대교회를 섬기면서 세 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였으며,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였다.

적은 노력 끝에 어렵게 미국유학 비자를 받고 1961년 8월 3일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December 1961: 1). 맥시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미국입국비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19, July 1961: 1). 이점에 있어서는 장성만 목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맥시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직후인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발송한 장성만 목사를 위한 추천서 내용에서 미국입국비자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까지 한 해 동안 좌절을 맛보며 두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관료주의와 싸우며, 서신들을 주고받았습니다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Linkletter, September 1963: 3>.

맥시 선교사 가족은 히데오 요시이 목사가 1961년 8월부터 1962년 6월까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직후 1962년 6월부터 미국에서 안식년 일정을 소화한 후 1963년 9월 14일 일본 가노야 선교센터에 귀착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December 1961: 1; Linkletter No. 134, September 1963: 1-2). 그리고 수일 후 맥시 선교사는 안식년을 소화한 일정을 정리한 글과 함께 장성만 목사를 위한 별지 추천서(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Linkletter, n.d.: 1)와 장성만 목사가 직접 쓴 별지 자기 소개서(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Linkletter, September 1963: 4)를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맥시 선교사는 1964년 1월 서신에서도 장성만 목사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장성만을 교회에 연사로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36, January 1964: 2). 맥시 선교사의 강력한 추천 덕분에 장성만 목사는 미국 유학시절 분주하게 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비전을 밝힐 수 있었다.

(5) 교회(혹은 선교) 확장으로서 교육사업

① 리차드 래쉬(Richard Glenn Lash, 라시득) 선교사와의 만남



래쉬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리처드(Dick Lash), Dawn,  
도로시(Dorothy), 멜바(Melba), 1957년 이전

래쉬 선교사 가족은 해롤드 테일러의 권유로 1957년 6월 24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선교사역에 참여하였다. 그는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선교지를 강릉으로 옮겼고,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래쉬 가족이 부산을 방문한 첫 사례는 1957년 6월 24일 부산항에 내렸을 때이다. 그들은 빌즈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렀는데 그때 장성만 목사를 처음 봤을 수 있다<"First Word from the Lashes," FCK, September 1957: 1>. 그리고 이듬해인 1958년 1월 9일 부산 광안리 해변의 인근 부지에서 라디오 방송국 건립 기공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장성만 목사는 물론이고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하던 리차드 래쉬 선교사 가족도 참석하였다<V. Alex Bills, "Ground Breaking," WL, February 1958, Number. 37: 1>. 또 래쉬 가족은 1961년 3월 10일에 시작된 안식년을 마치고 1962년 10월 22일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이때 방송국 식구들이 마중을 나갔고, 부산에서 이틀간 체류하였으므로 이때 또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래쉬 가족의 짐이 다음 배에 실렸기 때문에 짐을 찾기 위해서 다시 부산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때 다시 장성만 목사를 만났을 수 있다<Richard G. Lash, "Letter #39," FL, 23 November 1962: 2; "Letter #30," 10 February 1961: 1; "Letter #31," 30 March 1961: 1>. 이 몇 번의 짧은 만남만으로도 래쉬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가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란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래쉬는 장성만 목사를 1963년 2월말에 강릉지역의 부흥강사로 초빙하게 되고, 이 부흥회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의 글은 래쉬가 부흥회 강사초빙 전에 이미 벌써 장성만 목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가을 우리는 춘계전도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흥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거의 알지 못했지만 2월말과 3월초 곧 한파가 끝나가고 농번기가 닥치기 전 농한기에 열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강사로는 부산의 장성만을 초빙하였습니다. 부산의 장은 30세가량 된 젊은이입니다. 그는 사각턱형의 잘생긴 친구로서 자신이 확고히 세운 신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고 틀림없습니다.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책은 1,000부가 인쇄되었는데 20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두 번째 책도 요사이 출판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신문들에 실린 그의 칼럼은 인기리에 읽히고, 그의 집에 찾아오는 친구

들 중에는 부산시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강사로 초빙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집회가 뜨거울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Richard G. Lash, "Letter #40," FL, 20 February 1963: 3-4>.

래쉬는 이 부흥회가 2월 25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있었고 성공적이어서 기대감을 최고조로 충족시켰다고 피력하였다. 참석자도 지난 부흥회 때보다 남자들이 배나 더 많았고, 심지어는 여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다<Richard G. Lash, "Letter #41," FL, 4 April 1963: 1>. 다음의 글은 래쉬 선교사가 전하는 장성만 목사에 관한 영웅담이다.

장 목사는 다음 날 부산에서 왔는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덩이란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아침식사 전 기도회(1 시간)와 점심식사 전 사경회(1시간 반)를 인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부하고 실용적인 공부와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정에 달한 것은 저녁집회였습니다. 강사로서 그는 탁월합니다. 그의 설교는 극적이고 유머러스하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흥미로워서 그가 말하는 한 시간 내내 그는 잊지도 않은 좌석 가장자리에 균중을 붙들어둘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평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어린애들까지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복음은 우리 마을 전체에서 가장 신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밀착'(scoots)의 빈도로 균중의 밀도를 측정합니다. 밀착이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한 뒷자리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당겨 앉으라고 요구하는 횡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약 150명 수용) 더 이상 밀착할 수가 없었고 탁구장까지 넘치게 찾습니다. 강릉에서 집회를 마친 후 주문진에서도 3일 밤 동안 집회가 속개되었는데 나는 한번은 한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배당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지만, 그는 틈에 자리하게 되었고, 발은 돌아선 채였으며, 얼굴은 뒷벽을 향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돌아앉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즐기는 듯싶었습니다. 나는 처음 이틀 밤 집회에 몇몇 가족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트럭으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번은 우리의 3/4톤 픽업트럭에 27명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 픽업봉사를 시작한 것은 12마일 떨어진 주문진에 사는 세 명의 젊은이들이 남자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녁도 거른 채, 버스를 탈 20센트가 없어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Richard G. Lash, "Letter #41," FL, 4 April 1963: 2>.

이 부흥집회는 일요일 오후 강릉에서 안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종목?)는 집사로, 김 집사는 장로로 장립되었고, 침례 받을 사람이 강릉에 6명, 주문진에 8명이 있었다. 장 목사는 3월 6일 비행기로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공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Ibid.>

## ② 래쉬 선교사와 함께 한 부산에서의 교육사업

래쉬는 강릉에서 선교사역의 한계, 두 딸의 교육문제, 부산에서 함께 일하자는 장성만 목사의 지속적 권유로<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4> 이삿짐을 픽업트럭에 싣고 1963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임대한 부산의 집에 다음 날 오후 2시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3>. 부산으로 옮긴 후 1964년부터 강릉과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를 오가며 사역하였다. 때마침 존 힐 선교사 가족은 세계여행 겸 교사(校舍) 건축모금을 위해서 1964년 6월 초에 시작한 안식년으로 비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성서신학교를 오가다가 2학기부터 출강하였고, 1965년 봄 학기에는 한주 걸러 이틀씩 출강하였다. 1964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씩 있었던 졸업식에도 대부분 참석하였다. 1964년 12월, 1966년 12월, 1971년 6월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식 사진에서 리차드 래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67년 1월부터는 안식년을 가졌다 <Richard G. Lash, “Letter #46,” FL, 4 June 1964: 4; “Letter #48,” 2 December 1964: 2; “Letter #50,” 24 April 1965: 2>. 아래의 글은 그가 부산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힌 것이다.

장 목사는 부흥강사로 강릉에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고향인 부산지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강릉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크고 더러운 항구 도시 부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도시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움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취향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나는 5월에 부산에서 열린 컨벤션에 참석했을 때 장과 나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의 책무는 크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곳에서 우리 일의 전망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만큼 우리 앞에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었습니다. 장은 일 년간 유학을 떠났고, 지금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는 그의 귀국 전까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

장성만 목사는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동서기독교교육재단(Christian Education for Far East)<“Far East”가 ‘극동’이란 뜻이지만, 장성만 목사 본인에게는 ‘동서’를 뜻했다>을 만들어 1964년 늦은 여름 입국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이 재단 설립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미국 여러 교회를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한국에 기술대학을 설립할 것이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은 곳곳에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비밀스런 것을 준비하신 것이다. 사업가인 웰렌 밀러는 내게 결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었다. “장 목사, 너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재단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너를 돕겠다. 아주 좋은 멤버들을 소개하겠다.” 즉시 재단이 구성됐다. 윌리엄 홀 목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대학원 동기인 쉬퍼드 목사 부부, GM의 중역인 로버트 레슬리 부부와 밀러씨가 이사로 참여했다. 독신 여성 우체국장인 알리스 레이버거는 재정 담당을 자처하고 나섰다. 실로 황금멤버였다<‘역경의 열매(10),’ 2009년 4월 16일자>.

래쉬는 한국에 돌아온 장성만 목사와 많은 꿈과 생각과 의견을 나눈 후 결국 11월 19일 중요한 결심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 결심은 이듬해 봄 2월에 부산에 영남기독교 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를 개교하는 것이라고 했다<Richard G.



1965년 2월 1일 개교한 '영남기독교실업학교' 개교 첫 해에 19명이 입학하여 2년 후 14명이 졸업하였다.

Lash, "Letter #48," FL, 2 December 1964: 2>.

1965년 2월 2일(화요일, 설날)자 래쉬의 서신에 의하면, 2월 1일에 '영남기독교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가 개소되었다고 썼다. 1월 30일 토요일에 입학시험과 면접이 있었고, 20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하였다. 31일 주일에 부산시내 교회에서 특별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월 1일 월요일에 입학

생 19명의 개강예배가 있었다. 이때의 모토는 "성경과 보습을 들고!"(Take up the Scriptures and a spade!)였다. 강의는 1964년 가을에 임대해 놓은, 한때 교실로 사용됐던 그래서 책걸상과 칠판들이 모두 구비된, 건물의 사무실과 큰 홀을 빌려<장성만 목사는 이 건물이 동래 온천장의 2층 건물이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3일부터 시작되었다. 2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방식은 오전에 신학교 커리큘럼의 과목들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농업실습을 하였다. 농장의 첫 프로젝트는 돼지사육이었고, 나중에 염소와 젖소도 들여왔다<Richard G. Lash, "Letter #49," FL, 2 February 1965: 1>. 장성만 목사와 래쉬 선교사는 계간지 <로고스>(LOGOS)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개교한 1965년부터는 월간지로 바꿨다<Richard G. Lash, "Letter #49," FL, 2 February 1965: 2>.



1965년 11월 20일 장성만 목사 부부와 래쉬 선교사 부부가 이층건물 '알파 홀'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뜨는 기공식 장면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땅을 매입하여 이층건물 '알파 홀'(1971년에 래쉬 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Far East Christian Vocational College)로 개명하였다. 또 1966년 동 실업학교 강당에 세운 대학교회와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4개월의 노력 끝에 여권과 미국방문비자를 받아 1969년 8월 하순에 6개월간 체류하면서 대학을 홍보할 목적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건너갔다<Richard G. Lash, "Letter #73," FL, 25 August 1969: 1>. 이때 만든 홍보지를 보면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곧 개교 후 부산실

업전문학교로 정부인가를 받기 전까지 만 5년간의 학교운영의 목표와 모토는 분명했다. 그것은 설교자와 농업기술을 익힌 평신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었고, 특히 농촌목회자가 자립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가르치는데 있었다. 따라서 2년 과정의 교육의 초점을 성경교육과 농업교육에 두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농촌의 복음화와 근대화,” 대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노동의 존엄성”을 가르치는데 두었다 (trying to teach two things – the blessedness of the Word of God and the dignity of labor). 대학의 모토는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 보습을 들자!(Take up the Bible in one hand and a shovel in the other.)였다. 또 1969년 미국에서의 모금홍보지에 의하면, 동서기독교실업학교(Far East Christian Vocational College) 졸업생 44명 가운데 목사 8명(19%), 그리스도인 농부 11명(26%), 주부 및 가사보조 9명(20%), 입대자 6명(14%), 진학자 2명(4%), 교사 2명(6%), 그리스도인 일꾼 5명(11%)라고 소개하였다.

또 이 홍보지에 실린 장성만 목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32년 11월 2일 부산에서 출생, 1953-1963년까지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1965년부터는 부산 제일 그리스도(인)의 교회 목사, 동서기독교실업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했고, 또 <일본에 관한 에세이>, <상한 갈대>(The Bruised Reed), <하나님과 국가>, <씨앗을 심는 자>를 저술한 신약성경 믿음의 저자라고 했으며, 동아대, 영남성서신학교(Youngnam Bible Institute), 오사카성서신학교(Osaka Bible Seminary),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수학이라고 학력을 적었다.

박동순 사모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39년 8월 30일 울산에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와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수학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결혼했다는 것과 세 자녀 미국(5살, 제국, 현 동서대학교 총장), 미영(4살), 제원(2살, 현 국회의원의) 이름도 소개하였다.

래쉬 선교사는 앞서 소개한바 대로 장성만 목사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은 엄청나게 강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기관(학교)의 꿈이었고, 추진력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조력자였을 뿐입니다.”<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2>라고 했다. 래쉬는 또 박동순 사모와 그의 가족들, 곧 장성만 목사의 처가 식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장이 아내로 맞은 처가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처남이 우리들에게 주변을 보여주고 도시의 다양한 랜드 마크들 -- 고등학교, 또 한 분의 친척이 도시의 초대 시장이었던 시기에 한 조상이 기증 한 토지, 또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일본인에게 살해된 그의 할아버지의 기념비를 보여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박 형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미국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누를 수 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낙천적이고 무사태평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우리 아이들과 동년배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명목상의 신자였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고 부지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부산교회에서 장로에 장립되었습니다. 1월 3일에 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고, 공중목욕탕에서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을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박

장로가 전도한 동료 대학교수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직 학장이자 어린 시절 친구였으며, 장 목사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다른 두 명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공입니다<Richard G. Lash, "Letter #49," FL, 2 February 1965: 2>.

이 글에서 래쉬가 소개한 장성만 목사의 손위(7세 정도) 처남 박 장로는 박동화 박사로서 부산수산대학 교수를 거쳐 통영(統營)수산전문대 학장 및 창원대 총장(1987-91)을 지낸 인물이다. 1970년 5월 28일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 및 부산실업전문학교 예비 인가가 났을 때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2011년 5월 7일 향년 86세의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가 있다.

장인 박정수씨는 오랜 판사생활을 거쳐 부산시 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장모 최정선 권사는 부산YWCA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었다<‘역경의 열매(7),’ 2009년 4월 13일자>.

1963년 성탄절은 축복의 절기였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김운용·박동숙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운용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한 국제적 인물이다. 당시 그는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동숙씨는 아내의 바로 윗 언니다. 처가는 1남5녀인데,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장녀 동춘씨는 교사이고, 둘째 동근씨는 한신대 이장식 교수의 아내다. 3녀 동숙씨는 김운용씨, 4녀 동순은 나와 결혼했다. 5녀 동혜씨는 언론인 장주석씨의 아내다. 장남 동화씨는 창원대 총장을 지냈다<‘역경의 열매(10),’ 2009년 4월 16일자>.

### ③ 부산실업전문학교 정부인가와 래쉬 선교사의 은퇴



장성만 목사 부부가 학교법인 동서학원 '부산실업전문학교' 예비인가(1970년 5월 28일)를 받은 후 현판식을 하는 장면

1970년 전문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인가된 학교의 이름은 부산실업전문학교였다. 장성만 목사는 인가 직후 신입생 80명 모집에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했지만<‘역경의 열매(14),’ 2009년 4월 21일자>, 이 숫자는 인터뷰를 받아 적은 기자의 실수였거나 이후 대학의 경쟁률이 피크에 도달했던 때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래쉬는 승인된 입학정원이 120명이었고, 입학시험이 있었던 날은 1971년 2월 15일 월요일이었으며, 시험을 치른 인원은 279명이었다고 적었다<Richard G. Lash, "Letter #80," FL, 18 February 1971: 1>. 실제로는 2.3대 1정도였던 것이다.

정부로부터 120명 입학정원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1970년 6월 1일이었다. 장성만 목사는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36번 왕래했다<‘역경의 열매(11),’ 2009년 4월 17일자>고 말한 반면, 래쉬는 5년간 24번이라고 썼다. 래쉬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학교가 신청한 정부인가가 승인됐다는 공식통보를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학생모집에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수용시설을 갖추는 때부터 정부가 승인한 입학정원 120명을 해마다 모집할 수가 있고, 우리학교가 2년제이므로 등록학생을 24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축해야 할 교사와 시설규정을 충족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학생회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2년 안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진을 위해 내딛는 큰 걸음이자 매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긴 투쟁의 끝입니다. 장 목사는 그 일의 대부분을 수행해 왔고,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내가 시도해볼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을 성취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무인가를 받아내는 것은 미국에서 받아내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5년간 24번이나 부산과 서울을 오간 고생과 그 일에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나는 기쁨 뿐입니다.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하자면 너무 많은 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ichard G. Lash, "Letter #77," FL, 25 June 1970: 4.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한 날은 6월 25일이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추신을 붙인 날짜는 7월 3일이었다.>.

래쉬는 11월 26일자 서신에서 인가난 정원과 재학생까지 2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한 동 더 짓고 신구 건물의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캠퍼스 조경도 모두 마쳐 보기에 좋게 되었다고 썼다<Richard G. Lash, "Letter #79," FL, 26 November 1970: 1>.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관해서만큼은 장성만 목사와 래쉬 선교사간의 입장차가 분명했던 것 같다. 래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무인가로 운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장성만 목사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렵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무인가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1969년 8월 25일자 서신에서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6개월 기한으로 미국으로 대학홍보를 위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글을 첨부하였다.

학교 운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그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개종시키고 교회의 성장을 장려하는 목표에 한 수단이기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문을 닫는 것이 더 좋겠다는 우리의 요청을 놓쳐온 것일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지도자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오<Richard G. Lash, "Letter #73," FL, 25 August 1969: 2>.

리차드 래쉬의 고민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독립교회들)은 교단(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과 33개가량의 훌륭한 대학(교)들을 자유주의신학(자들)에게 통째로 빼앗긴 쓰라린 경험(trauma)을 갖고 있었고, 그 같은 함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오직 성경과 복음'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중반에 새로 세워진 30-40여개의 대학들의 이름이 대부분 'Bible College'들이었고, 몇 개만이 'Christian College'들이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자유주의신학의 함정에 빠지

는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대학개편에 매우 소극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기독교회선교부 신학교를 송월동에서 역촌동의 너른 캠퍼스(서울성서신학교)로 옮겨 정부인가를 받으려했다가 포기(또는 반대에 부딪친)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또 선교사들은 내국인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일에도 소극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다. 맥시 선교사에게서 보았듯이, 1900년대의 선교사들은 내국인 젊은이들을 주선해서 미국의 대학(교)들에 보내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해버리는 또 다른 안 좋은 경험에 익숙해 있었다. 선교사들이 인재 키우는 일에 소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반면에 장성만 목사(경남정보대학), 최윤권 목사(대한기독교신학교), 김찬영 목사(한성신학교)에게서 보듯이, 내국인들은 정부인가와 대학개편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리차드 래쉬(라시덕)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돈(Dawn), 리차드(Richard), 케빈(Kevin), 멜바(Melba),  
도로시(Dorothy). 1971년 8월 31일 부산을 떠나기 이틀전 사진

아무튼 래쉬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를 지극히 존경했고,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지만, 학교의 발전과 함께 찾아올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곧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시작은 했지만 정작 신학교는 아닌 농업을 가르치는 실업학교가 앞으로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길과 선교사인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다른 이유들이 더해져 그는 결국 한국에서의 선교를 접고 미국으로 아주 떠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학교가 정부인가를 얻고 학생들이 몰려오는 시점 곧 자신이 빠져도 학교의 자립과 발전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재학생을 포함해서 등록된 학생수가 175명이라고 했고, 장성만 학장은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또 다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그해 춘계신앙수련회 때 마크 맥시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침례를 받은 인원이 30명 이상이었다고도 했다. 이때 래쉬는 자신의 결심을 마크 맥시 선교사하고 의논했을 것이고, 맥시는 이때 자신의 모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래쉬에게 귀띔해준 것으로 보인다(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2).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재학생을 포함해서 등록된 학생수가 175명이라고 했고, 장성만 학장은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또 다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그해 춘계신앙수련회 때 마크 맥시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침례를 받은 인원이 30명 이상이었다고도 했다. 이때 래쉬는 자신의 결심을 마크 맥시 선교사하고 의논했을 것이고, 맥시는 이때 자신의 모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래쉬에게 귀띔해준 것으로 보인다(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2).

래쉬 선교사는 자신과 가족이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를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 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



1971년 7월 15일 래쉬 선교사 가족을 위한 송별예배 직후에 장성만 목사는 1966년에 건축된 '알파 홀'을 '래쉬 기념관'으로 바꾼 현판과 벽면에 래쉬 선교사의 미소 띤 얼굴을 부조한 동판을 기념작 공개함으로써 래쉬 선교사의 노고에 보답하였다.

었다(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1-4).

래쉬는 두 차례 안식년을 가진 헛수를 제외하면 4년씩 세 차례 총 12년간 사역하였다. 학교에서의 송별예배는 1971년 7월 15일에 있었다. 이때 장성만 목사는 래쉬 목사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했는데, 그것은 1966년에 지은 첫 번째 건물의 이름을 '알파 홀'에서 '래쉬 기념관'으로 바꾸고, 건물 벽면에 래쉬의 미소 띤 얼굴의 동판부조를 부착한 것이었다(Richard G. Lash, "Letter #82,"

FL, 31 July 1971: 2-3). 이때 장성만 목사의 나이는 39살이었다.

장성만은, 비록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재원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문학적 재능과 소양이 있었고, 판사출신의 변호사였던 장인과 장모(부산 향서교회의 권사 및 여전도회 회장)[김길창, <순산 김길창 박사 자서전, 설교집>(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72): 100-101]와 교수 처남과 한국의 지도자급 인물들이었던 동서들의 마음을 살만한 패기와 미래가 보이는 유능한 젊은이였다. 장성만 목사의 20대를 지켜본 알렉스 빌즈와 30대를 지켜본 리차드 래쉬도 장성만 목사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에 매료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를 나왔으므로 일어가 가능했을 것이고, 짧은 기간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곳 선교사들의 마음을 얻을 만큼 믿음과 신뢰감이 있었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였고, 훗날 일본에서 경남정보대학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일 년 조금 넘게 머물렀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꿈을 성취시킬 교육재단설립을 성취시킨 것만 보아도, 비록 그 때가 한국의 사정이 어렵던 1960년대였고, 세 명의 선교사들 곧 알렉스 빌즈와 리차드 래쉬와 마크 맥시가 그들의 선교서신들에서 장성만 목사를 자주 소개한 덕도 보긴 했겠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믿음직한가를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히 선보인 얼마나 유능한 30대의 젊은이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가 마크 맥시, 알렉스 빌즈, 리차드 래쉬 선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구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이었다. 마크 맥시는 내국인을 함부로 유학을 알선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다. 그가 히데오 요시이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그를 고등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을 지켜본 다음이었다. 황무지에서 오늘의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일궈낸 것과 재선의원으로서 민정당 정책위원장이 된 것과 국회부의장이 된 이런 점만 보아도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발한 장성만 목사의 노력과 타고난 지도력이 어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만한 그래서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입을 만한 신앙이 투철한 목회자였다.

## 2) 리차드 래쉬

래쉬 Richard Glenn. Lash 라시득(羅時得) 1928.11.26-2001.12.02.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 경남정보대학교 공동 설립자.



Richard G. Lash 라시득(1928-2001)

리차드 래쉬(Richard Lash)는 1953년 12월에 두 살 연하인 멜바 톰프킨즈(Melba Tompkins)와 결혼하였다. 리차드와 멜바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은 1957년 1월말에 일본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던 선교계획을 한국으로 바꿨다. 이 결정에 해롤드와 에이다 테일러(Harold and Ada Talor)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이때 래쉬 부부는 링컨성서신학교(현 링컨기독교대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받고 있었다. 테일러 부부는 1955년 11월 13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줄곧 래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게 되기를 바랐다(테일러 선교사의 모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아직 없다. 하지만, 1950년 후반기에 테일러가 초청했거나 추천해서 짧은 기간 함께 일했던 리차드 래쉬, 조셉 세걸키, 최윤권 목사(석사과정),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가 링컨성서신학교 출신들이었던 점은 테일러 역시 링컨성서신학교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래쉬 선교사는 1957년 한국에 도착해서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테일러 선교사의 주선으로 한국말을 공부했고, 테일러 선교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선교지를 옮겼다. 선교지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옮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첫째는 테일러 선교사가 존 T. 채이스 선교사 및 존 J. 힐 선교사가 키워온 '기독교회선교부' 건물과 부지 및 신학교 건물과 부지를 1958년에 모두 팔았기 때문이다. 신학교는 새 부지와 건물이 마련되기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래쉬의 사모 멜바는 1958년 4월 24일에 쓴 선교서신에서 테일러가 3월 31일자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언급하였고, 자신들도 4월 하순에 강릉에 거처를 계약했다고 적었다. 둘째는 한반도 남서쪽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제법 많지만, 강릉에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어촌에 가정교회가 한 곳 있었고, DMZ에 가까운 곳에 또 한 곳이 있었으며, 강릉에서 남쪽으로 7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한 곳이 있었지만, 건물이 팔리고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적었다. 더 남쪽으로 내륙 산악지역 한 곳에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부잣집에서 6-7명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목사는 동해안 연안에 한 명밖에 없다고 적었다(Richard G. Lash, "Letter #13," FL, 24 April 1958). 래쉬 가족은 동해안 최북단에서 부산까지 그리스도(인)교회들의 상황이 이처럼 열악한 강릉지역을 선교지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도로 사정과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동차로 1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1960년 6월 16일 래쉬가 쓴 서신에 의하면, 래쉬 가족, 특히 멜바는 강릉에서 얻은 선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5·16군사혁명으로 인한 사회불안, 과중한 업무, 각종 질병, 문화충격, 언어충격, 사단의 방해까지 겹쳐 좌절과 실망으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곤 했으며 특별 기도를 부탁하였다(Richard G. Lash, "Letter #26," FL, 16 June 1960). 다음 달 1960년 7월 20일자 서신에서 멜바는 이렇게 적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신실한 기도후원이 없이는 여기서 우리의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좀처럼 누그러질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압박에 날마다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매일의 전투에서 기꺼이 기도으로써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임무를 띠고 이곳 "최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후에서 신실하게 "실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를 쓰는 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친교로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국어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양하지 못한 채 수개월씩 지내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보내신 서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온기가 되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Richard G. Lash, "Letter #27," FL, 20 July 1960).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음전도를 시작하였으며, 초등, 중등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래쉬의 강릉지역 활동은 주로 교회 개척과 후원에 집중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주문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건축과 설교자의 후원에 조력하였다. 또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으로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1964년 교회건물을 새로 건축하였다. 6월 17일 기공식을 가진 후 8월에 완공하였다(Richard G. Lash, "Letter #47," FL, 24 August 1964). 래쉬는 병산교회를 시작하였고, 구절교회는 그의 도움과 동해 지역 교회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또 래쉬의 통역을 맡았던 최종목이 래쉬의 도움을 받아 평산교회를 개척하였다.

주문진 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녔던 어느 여학생에 의해서 설립되어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강릉교회는, 1959년 11월 25일자 서신에 의하면, 주일날 70-100명 정도가 모였고, 여름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평균 80여 명씩 모였다. 동년에 한국인 전임목회자가 부임하였다(Richard G. Lash, "Letter #23," FL, 25 November 1959).

래쉬의 통역은 최종목이 맡아 수고를 했는데, 통역으로 사역하는 동안 평산교회를 개

척하여 설교하다가 래쉬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간 1964년부터는 전임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1967년경부터는 강릉교회를 담임하였다. 강릉교회는 그가 부임하기 일 년 반 전에만 해도 재정의 곤란을 겪었던 교회인데, 그가 부임한 이후로 강릉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재정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강릉교회가 개최한 한 집회에서 38명의 결신자가 나왔고, 걷힌 헌금이, 약정한 헌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10만(333달러)원이었다는 소식을 들은 래쉬는 감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10만원은 그 교회의 일 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큰 액수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래쉬가 최종목 목사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놀랜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새 양복이 교회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Richard G. Lash, “Letter #77,” FL, 25 June 1970>. 1964년 2월 11일자 서신에 의하면, 평산교회는 250여명이 출석하였는데 대다수가 초신자들이었다 <Richard G. Lash, “Letter #45,” FL, 11 February 1964>.

래쉬는 1963년부터 한국인교회지원자클럽(Korean Church Helpers Club, KCHC)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클럽에 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의 지도자를 두고, 선교헌금 100불을 종자돈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 돈이 매월 조금씩 불어나기를 바랐고, 미국의 후원자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 클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매년 다섯 번째 주일을 KCHC의 날로 정하여 지키자고 하였다. 래쉬는 이 무렵 한국에서는 1천불이면 꽤 괜찮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Richard G. Lash, “Letter #42,” FL, 26 June 1963: 3>. 이 클럽(KCHC)에 모금된 돈이 탄광(영동)교회와 주문진교회 등의 예배당 건축에 쓰였다. 주문진교회는 1971년 후반기에 출석인원이 100여명에 이르렀다 <Richard G. Lash, “Letter #61,” FL, 9 March 1967; “Letter #73,” 25 August, 1969: 2;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1>.

1963년 11월 20일자 서신에 의하면, 강릉에서의 사역의 제한성, 두 딸의 교육문제, 장성만 목사가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함께 일하자는 권유 등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96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활동하였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귀국하기 전에 강원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가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부산에서 함께 대학설립을 하기로 이미 오래 전에 약속한 바 있었다. 장성만 목사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학업과 교회순방을 마치고 1964년 늦은 여름에 귀국하였다. 그 공백 기간에 래쉬는 부산에서 대전 한국성서신학교로 출강하였다. 1964년 12월, 1966년 12월, 1971년 6월 졸업사진에서 리차드 래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와 함께 1964년 가을에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켰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의 땅을 매입하여 이층 건물 ‘알파 홀’(후에 래쉬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개명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의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및 부산디지털대학교로 발전되었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안식년을 가진 3년을 제외하면 4년씩 세 차례 총 12년간 사역하였다. 그 일을 래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바쁘게 살았던 기간이었고, 기쁨과 역경이 함께한 나날들이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가볍게 꺾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형성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과 단절해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는 “스트레칭”이란 말을 대신 써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작별여행에서 살아남을 또 우리가 미국 어느 곳인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를 잡아당길 꽤 많은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1>.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목회 경험은 없지만, 목사관에서 보고 자랐으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은 지난 14년간 11,000통, 거의 매일 2매 정도의 편지를 쓰느라 타이핑을 했으니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3>. 래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케빈’이라고 이름을 지은 미숙아를 입양하였다.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한 1971년 8월 첫 주에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교정에서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어 한꺼번에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고, 둘째 주부터 강릉지역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다섯 개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쁨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주문진교회는 출석교인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탄광(영동)지역 교회는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래쉬가 방문하기 전날 5명의 새신자가 침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름다운 산중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도 방문하였다<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1>.

비행기 샅을 아끼기 위해서 래쉬는 두 딸과 함께 멜바와 케빈보다 먼저 8월 31일에 한국을 떠났다. 멜바와 아기 케빈은 며칠 뒤에 한국을 출발하였다. 래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미네소타성서대학에 시간제 선교학 교수로 채용되었고, 동시에 학교가 소재한 로체스터 프레전트 그로브(Pleasant Grove)에 소재한 60-70명 정도의 교인을 가진, 그러나 100여명이 출석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설교자로 채용되었다. 교회소유의 큰 목사관이 있어서 주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2, 4>.

이후에 래쉬는 멜바와 이혼하였고, 한국인 여성 최규순(Ruth)과 재혼하여 강원도 강릉, 병산 등에서 함께 동역했던 최종묵 목사 부부가 거주하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정착하여 살다가 73세로 2001년 12월 2일에 별세하여 제대군인의 장례식(military

honors)으로 조지아 주 그윈넷 카운티(Gwinnett County), 스넬빌(Snellville) 이터널 힐스 메모리 가든즈(Eternal Hills Memory Gardens)에 영면하였다. 래쉬는 재향군인이었다<황필남, ‘아틀란타 선교여행 소식, 구제로 살아난 한국인들’, <http://pnhwang.com/xs/1012> (게시 2010.06.05)>.

부인 멜바는 1930년 7월 19일 일리노이 주 댄버즈(Danvers)에서 아버지 에드워드 톰프킨즈(Edward Tompkins)와 어머니 셸마(Thelma) 사이에서 태어났다. 밀턴(Milton) 고등학교를 1948년 졸업한 후에 캐나다 앨버타에 소재한 프레이리 신학교(Prairie Bible Institute in Alberta)에서 2년간 수학하였다. 멜바는 리처드 래쉬와 이혼한 후 2004년 10월 19일 윌리엄 바드웰(William "Bill" Bardwell)과 재혼하여 프레전트 그로브에서 가까운 스투어트빌(Stewartville)에 거주하며 갈보리 침례교회에 출석하였다. 멜바(Melba T. Lash)는 2019년 6월 18일(화)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프레전트 그로브에 소재한 유니온 공동묘지(Union Cemetery)에 영면하였다<<https://www.postbulletin.com/obituaries/melba-lash-stewartville> (게시 June 20, 2019)>.

[주요저술] Flashes from the Lashes(FL), 24 April 1958: 1-4; FL, 25 November 1959: 1-2; FL, 16 June 1960: 1-2; FL, 20 July 1960: 1-4; FL, 5 September 1960: 1-2; FL, 3 November 1960: 1-3; FL, 10 February 1961: 1-2; FL, 30 March 1961: 1-2; FL, 25 May 1961: 1-2; FL, 1 September 1961: 1-2; FL, 2 December 1961: 1-2; FL, 15 February 1962: 1-4; FL, 18 May 1962: 1-2; FL, 23 July 1962: 1-2; FL, 3 October 1962: 1-2; FL, 23 November 1962: 1-4; FL, 29 February 1963: 1-5; FL, 4 April 1963: 1-4; FL, 26 June 1963: 1-4; FL, 31 August 1963: 1-2; FL, 20 November 1963: 1-4; FL, 11 February 1964: 1-4; FL, 4 June 1964: 1-4; FL, 24 August 1964: 1-2; FL, 2 December 1964: 1-2; FL, 2 February 1965: 1-4; FL, 24 April 1965: 1-2; FL, 9 March 1967: 1-4; FL, 25 September 1967: 1-2; FL, 4 July 1969: 1-4; FL, 25 August 1969: 1-4; FL, 21 November 1969: 1-3; FL, 6 February 1970: 1-4; FL, 5 May 1970: 1-4; FL, 25 June 1970: 1; FL, 9 October 1970: 1-4; FL, 26 November 1970: 1-2; FL, 18 February 1971: 1-2; FL, 1 May 1971: 1-5; FL, 31 July 1971: 1-4; FL, 11 October 1971: 1-4; FL, 22 November 1971: 1-2.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 (서울: 쿤란출판사, 2018), 142-43,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94-500; 최재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서울: 태광출판사, 2005), 99-100. <https://www.postbulletin.com/obituaries/melba-lash-stewartville> [게시 June 20,

2019]; 황필남, ‘아틀란타 선교여행 소식, 구제로 살아난 한국인들’,  
<http://pnhwang.com/xenews/1012>. [게시 2010.06.05].